

# 신년사

존경하는 대한 가정의학회 회원 여러분께 2002년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 하였던 새 천년 첫 해가 지나가고 두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월드컵으로 인해 나라 안팎이 요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정의학과가 우리나라에 들어 온 지도 22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지만 아직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슬러전으로 내세운 “가족의 건강은 가정의에게”라는 말에 우리는 얼마나 다가갔는 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해는 의약분업 첫해로서 진료를 맡고 있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자의 원인을 의사쪽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많은 곤란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로서의 본분만 다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정의의 역할은 일차 진료의로서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며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과거 오래 전부터 내세운 가족 주치의의 역할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좀더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까이 있어야 하는 이런 제도들, 즉 가족 주치의나 가정방문 진료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많이 부딪혀오고 그로 인해 주춤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해마다 뛰어난 재원들이 저희 가정의학과를 지원하고 200여명의 전문 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차 진료의인 가정의학과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어 발전시키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학과 여러분, 가정의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 일차진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애써주신 홍명호 이사장님 이하 여러 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새롭게 학회 임원들을 구성하신 최현림 이사장님 이하 여러 임원들이 수고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가정의학회 회장 신 동 학